

대학개혁,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국 대학교육에서의 교수방법 모색

신 광 영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1. 머리말

한국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까? 요즈음 언론과 기업은 한국 대학교육의 부실함을 들추어내느라 정신이 없다. 왜 갑자기 대학이 문제인가? 이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군사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대학이 황폐화되고, 대학의 창의적인 연구풍토가 사라진 결과인 한국 대학교육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대학 내부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인가? 대부분의 언론과 기업은 왜 70년대, 정치적 민주화와 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등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는가?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과 밀월관계를 누렸던 언론과

기업들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언급하고 있으니, 반성적인 사고능력이 결여된 단세포적 사고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대학정상화나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많은 제도적인 개혁과는 무관하게, 교수들에게 영원한 화두로 떠도는 것이 대학 강의실에서의 교수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새학기를 맞을 때마다 고심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학기중에 강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다. 전문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수강하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항상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매학기마다 반복이 된다. 한편으로 강의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수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학생들이 강의 첫 시간에 가장 궁금해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교수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준비나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쟁력있는 대학이란 경쟁력있는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교육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면, 교수방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교수방법은 어떠했는가?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본인의 전공에 특수한 면이 많다. 실험을 주로 하는 이공계나 실습을 주로 하는 예체능계열의 전공에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수방법 일반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교육방법을 주제로 연구하는 교육학자도 아니다. 그러므로 강의실에 한정된 논의보다는 한국 대학, 나아가 교육 일반과 관련지어 교수방법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교수방법은 컨텍스트에 따라 그 효과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이라는 컨텍스트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에서의 교수방법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한국 대학의 현실

대학교육에 있어서 교수방법은 한국의 교육현실과 무관하게 논의될 수 없다.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미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시절부터 오랜 기간의 학습과정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와 행동방식을 익혀왔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형성된 교육관과 학습태도가 하루 아침에 변할 수는 없다. 대학교육에서 교수방법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미 대학에 들어오기 이전에 학생들이 배운 학습태도와 방식이다. 유치원에서부터 입시학원에 이르기까지 교수방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권위주의적 교수방법이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의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며, 배운 것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을 금기시한다. 12년 이상 수동성과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배워온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창의적이고 개방된 학습태도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숲 속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이 무모한 짓이다.

이러한 점은 대학교수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대학교수들이 권위주의 교육의 후예이거나 실행자이기 때문이다. 요즘 세대들보다 더 억압된 학교환경 속에서 자란 세대가 바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 세대이다. 그래서 때로 일부 엉뚱한 질문을 교수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호통을 치는 일까지 강의실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교육의 목표의 부재이다. 점점 더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대학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교수방법에 관한 논의는 소득없는 논의가 되기 쉽다. 대학교육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지식보다는 취직을 대비한 교육이라면, 취업학원처럼 암기위주로 요약된 강의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교수방법이 효과적인 것이다. 그보다는 창의적인 사고와 지성의 산실로서 대학을 생각하고, 이에 결맞은 대학인을 길러내는 것이 대학 본연의 임무라면, 교수방법은 틀에 박힌 표준화된 지식보다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대학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느 누구도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일부는 대학을 진리와 정의의 등불을 밝히는 상아탑으로서, 또 다른 일부는 대학을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키워내는 장소로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이러한 여유있는 대학상을 그리기 이전에 누적된 취업문제를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대학교수들도 많은 듯하다. 오늘날 이처럼 혼란스러운 한국 대학의 교육목표가 교수방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목표가 분명해야, 수단도 분명해질 터인데.

3. 교수방법의 모색

아마도 대부분의 교수들은 교수방법과 관련하여 뚜렷한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교수방법의 모색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런 저런 방법들을 매학기마다 채택하여 적절한 교수방법을 찾고 있지만, 적당한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곤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시도한 이런 저런 교수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교수방법은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와 강의에 사용하는 매개물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독백과 대화

교수들이 채택하는 교수방법은 대체로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일 것이다. 가장 많이 채택되는 방법은 전통적인 교수방법으로 독백식 강의방법이다. 교수는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발신자이고, 학생들은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가 된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방법은 전통적인 스승과 제자라는 위계질서 속에서 자리잡은 교수방법이다. 전통적인 서당식 교육방법의 연장이다.

두번째 교수방법은 토론식 교수방법이다. 흔히 세미나식 교수방법이라고 불리는 토론식 교수방법은 일부의 학생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곧 이어 발표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통하여 개념이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분명히 하거나 혹은 발전된 논의로 나아가는 수업방식이다. 이 방식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교육조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규모가 크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적은 상태에서 토

론식 수업은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번째 교수방법은 절충식 교수방식이다. 절충식은 강의와 토론을 혼합하는 방식이다. 교수가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특정한 논문이나 쟁점을 중심으로 보완적인 토론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절충식 교수방식은 상급수준의 전공과목을 강의할 때 알맞은 방법이다.

위의 세 가지 방식들 가운데 각각의 방식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준비와 부담을 요구한다. 독백식 강의방식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부담이 적을 수 있다. 강의를 충실하게 수강하는 경우에 상당부분의 지식이 축적될 수 있다. 물론 일방적으로 주어진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내용에 대한 섬세한 분석과 검토는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강의 내용의 분석과 검토는 일차적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몫이다. 그러므로 교수의 입장에서 많은 양의 이야기 혹은 강연 형태의 강의안이나 강의자료가 필요하다.

토론식 교수법은 담당교수로 하여금 주제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토론을 이끄는 방법에 익숙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담당교수는 몇몇 학생들이 토론을 독점하거나 혹은 토론이 주제와 관계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적절하게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토론식 교수법은 전공에 관한 지식과 토론을 조절·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토론식 수업은 가장 부담이 되는 수업방식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수업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외국의 경우 학생들의 토론 기여도가 평가에 고려되는 이유가 바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절충식은 문자 그대로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한 것이다. 강의와 토론을 절충한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적정수준의 부담을 가함으로써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담당교수의 입장에서 학

생들의 이해도를 토론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수준과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담당교수의 부담은 큰 편이다.

2) 강의의 매개물

전통적인 수업방식은 음성과 칠판의 문자로 구성된다. 칠판의 문자가 강의 보조수단인 셈이다.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전통적인 수업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시청각 교육이라는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을 최대한 이용하는 수업방식이 발달해 왔지만, 최근에는 극소 전자 혁명이 종전의 시청각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을 흔히 컬러세대라고도 부른다. 흑백 TV 대신에 컬러 TV를 보고 자란 세대라는 의미에서 컬러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매체는 영상을 통한 교육이다. 이들에게는 활자와 흑판 글씨 대신에 슬라이드, 영화, 비디오 등 눈과 귀를 통한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다. 비디오와 오디오를 이용한 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고리타분하게 느끼는 교육매체를 이용한 강의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슬라이드와 비디오를 동원한 강의 방법은 개론 수준의 강의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학술발표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판서 대신에 슬라이드를 통한 강의가 유행할 날도 멀지 않았다.

보다 더 혁신적인 것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강의 방법이다. 이미 CD-ROM과 LDP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의시간에 이들을 이용한 강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흥미유발 때문만은 아니다. 대체로 흑판 판서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는 사고할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를 이해하고 노트를 작성하느라 바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불필요한 수고를 학생들이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강의노트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노트를 하지 않고, 강의의 이해만을 목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담당교수가 강의노트를 컴퓨터 디스켓이나 인쇄물 형태로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의 형태로 강의노트를 송신할 수도 있다.

3) 개방적인 사고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강의실에 한정된 수업방식은 교수와 학생 사이에 위계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고, 이에 기초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러한 수업방식은 진부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의 교수들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교수가 소유하고 그 일부를 학생들에게 강의를 통하여 조금씩 보여주는 교수방식은 이제 적절치 않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허식이 제거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의 활성화는 교수들의 개방된 사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오늘날처럼 전문적인 지식의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 과거처럼 지식의 신비화와 독점화를 통하여 유지되었던 교수들의 권위는 약화되기 쉽다.

교수들의 개방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인정함을 요구한다. 상아탑은 이래야 한다는 보수성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대학의 활성화는 권력이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창조할 수 있는 분위기에 의해서 대학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유는 혁신을 낳고, 혁신은 발전을 낳는다. 극도로 규율이 잡힌 군대는 질서는 있을지언정, 창의적인 정신은 없다. 강의도 마찬가지이다. 극도로 사고를 억압하는 일방적인 강의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막고, 훈육된 생도로 만든다.

교수가 개방적이라고 하여 학생들이 개방적인 것은 아니다.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은 십여 년 동안 강의실의 권력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개방적이지 못하다. 이들은 무조건 교수가 가르친 것을 외우고자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사고를 개방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수가 강의하는 것이 진리요,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은 없다. 진리에 접근하고자 하여 제시된 한 가지 전해요 이론이다. 이것은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문부호를 다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개방성은 교수들에게 달려있다.

4. 맺음말

교수방법은 단순히 강의실에서 기능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수방법은 보다 근원적으로 강의실의 분위기와 진리를 추구하는 기본 정신과도 관련이 있다. 물론 대학의 모든 강의들이 진리를 찾기 위하여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과 사고

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강의실 분위기가 혁신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수들의 권위는 독점되어 있는 비밀스런 지식에서 우러나는 것은 아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사고력, 창의력과 통찰력에 의해서 권위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도 커질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인들이 외국 대학교수들의 이론만을 소개하는 지식복덕방 중계인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불필요한 권위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권위나 권력은 강의 내용에서 그리고 학생 교육을 위한 열정에서 생겨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수들을 부당하게 간섭하여 왜소화, 무력화시키는 학내·외 조건들이 먼저 제거되어야 함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다. 부자유스러운 대학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될 수 없다. 창조는 자유의 결과물이다. ▣

신광영/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학회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출판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춘천 리포트』(공저) 등이 있고, 공동 논문으로 "한국의 계급구조", "Temporality and Class Analysis"의 다수를 발표했다.